

大學과 大學人의 使命

池 哲 根*

著 者

題 目

- 1. 研究에 대한 姿勢
- 2. 教育에 대한 姿勢

- 3. 社會奉仕에 대한 姿勢

知識의 獲得인 研究, 知識의 傳達인 教育, 그리고 知識의 應用인 社會奉仕를 大學의 三大使命이며, 동시에 大學敎授의 三大使命이라고 말하고 있다.

眞理의 追求를 理念으로하는 大學人의 사명은 새롭게 창조적인 知識을 開發하는 研究가 주된 사명이라 생각되며 研究를 통하여 얻어진 知識을 다음 世帶에 전달하는 教育이나, 또한 開發된 知識을 社會問題에 應用하는 社會奉仕를 부차적인 사명이라고 볼 수 있다.

大學에서의 主使命이며, 主機能이기도 한 研究는 創造的이고, 創造의 기반이 되는 學問의 體系化를 위한 것이므로 社會에서의 研究나 大學 이외의 독립된 機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研究와는 根本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大學에서의 研究는, 理念이 確固하고, 自主的이라야 한다고 본다. 한편 大學에서의 教育은 研究開發된 知識을 傳達하고 習得케 함은 물론 研究活動을 통하여 그 방법을 체득시키므로서 創意的인 素養과 評價할 수 있는 資質開發과 아울러 指導者의 人格을 도야시키는 데 있다고 본다.

大學이 學問을 바탕으로 해서 존재하고, 그 활동을 研究로 나타내며, 또한 効果는 教育과 社會奉仕로 나타나는 곳이라 한다면, 大學에서의 研究는 研究自體로서 價値가 있을 뿐만 아니라 教育體系속에 融合되어야 하므로 大學에서의 研究와 教育은 不可分의 관계가 있다고 본다.

大學에서의 研究가 社會要求에만 좌우되어서는 안되지만, 그렇다고 大學이 社會로부터 고립되거나 社會에의 貢獻을 등한시 해서도 안될 것이다. 大學도 社會構成要素의 하나인 만큼 그가 속해있는 國家와 社會를

위해 봉사하여야 하지만 大學에서의 社會奉仕는 어디까지나 研究開發로써 얻어진 知識을 바탕으로 하여 社會의 급속한 發展과 變遷을 豫見하고 評價하여 그 社會의 進路를 明示하는데 있다고 본다.

이러한 大學의 使命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大學人으로서 姿勢를 再考하여 보기로 한다.

1. 研究에 대한 姿勢

大學에서의 研究는 大學의 使命과 機能에 부합된 것으로 創造的이며, 學問體系發展에 기여되어야 하며, 社會問題에 관련된 研究일지라도 學問的인 意義가 없어서는 안될 것이라 본다. 그러므로 大學에서는 知識의 進歩를 목적으로 하는 基礎研究가 추가되고 있고 여기에 비하여 應用研究의 비중이 적은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基礎研究만이 價値가 있고 應用研究는 價値가 없다는 말할 수 없다.

基礎研究도 應用되고 具體化되어서 비로서 그의 성과가 확정되고, 또한 應用研究의 도중에서도 새로운 기초적인 해명을 필요로 하는 계기가 때때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여하튼 大學의 研究理念은 확고하여야 하며 創意性도 體系性도 없는 單片的 研究나 事大主義的인 文化授業등이 있어서는 안되며, 또한 社會問題에의 지나친 관여도 고려할 문제이다. 大學의 機能을 발휘할 수 있는 原動力이 敎授의 研究이며, 敎授의 研究成課가 教育과 社會奉仕 등에 본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大學機能의 成敗는 敎授의 研究機能발휘여하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 正會員 : 서울대 工大 電氣工學科 敎授 · 工博

2. 教育에 대한 姿勢

工夫하려는 學生의 의욕을 북돋아 주는 길은, 學生을 教授의 研究하는 분위기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므로, 講義內容에 가능한 教授의 研究成果를 담아서 學生들로 하여금 人間의 親近性을 통하여 學問의 奧味와 意의욕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할 수 있다.

성실한 講義와 對話를 통한 긴밀한 접촉은 보다 나은 教育成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므로 研究나 講義가 소홀히 되는 일은 있어서도 안될 것이다.

한편 大學의 學生은 學問的으로나 人格的으로나 未完成이며 장차 발휘할 수 있는 無限한 創造能力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떤 틀에 박혀져서는 안되며 각자의 진로나 體系를 발견할 수 있도록 지도되어야 하며 自己開發의 기회와 폭넓은 基礎의 구축이 강조되어야 하리라 본다.

이러한 면에서 볼때 大學의 教授는 研究開發能力과 權威能力은 물론 훌륭한 人格을 구비하여야 되리라고 생각된다.

3. 社會奉仕에 대한 姿勢

大學이 眞理探究로 人類의 福祉向上을 도모하는 곳

이라면, 그의 社會的 効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다.

더우기 開發途上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國家와 社會가 요구하는 社會奉仕와 大學의 現實과의 相互間에 적절한 調和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大學에서의 社會奉仕는 大學의 主使命인 創造的인 研究를 바탕으로 한 社會에의 활용을 기반을 두어야 마땅하다.

社會奉仕에 치우쳐 研究와 教育이 소홀히 되거나 바람직스럽지 않은 社會奉仕로 변질되는 일이 있다면 이는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大學의 三大使命과 이에 대한 자세를 총괄적으로 돌이켜 보건데 大學人은 앞으로 다가올 高度의 知識社會에 대응하는 단기육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예지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폭넓은 구상을 필요로 할 뿐 아니라, 人類社會나 國家의 未來像을 豫見하고 進路를 明示하는 主導의 역할을 담당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35년이란 年淺한 傳統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大學에서 특히 스스로 빛나는 大學의 참된 역사를 형성하고자 하는 건실한 사고가 모든 大學人과 學生들간에 충만되어 大學이 權威의 象徴으로 부각되도록 勇氣와 信念을 가지고 노력할 때, 우리나라의 大學과 大學人의 앞날은 밝게 빛나게 될 것이라 생각된다.